

■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문학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문학분야 지원심의회의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14:00~16: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고명철, 노희준, 이영주, 이정록, 주지영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은 그간 별도로 운영되었던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과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을 통합하고 해외진출 유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청년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예술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창작 및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균형 지원제도 의무 적용 사업인 만큼 비수도권과 수도권 등의 사업 영역을 구분하고 리서치·비평, 국내발표, 해외진출로 사업유형을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5인은 약 한 달에 걸쳐 지원신청서를 사전 검토하고 개별 채점을 진행하였고, 현장 심의에서 채점 결과를 취합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총 17건의 지원서 중 8건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심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계자가 배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심의에 관련된 유의사항과 심의 참여 시 제척, 회피제도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지원서의 내용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점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둘째, 결과물로 제안한 내용이 사업의 목적과 맞는지 고민되는 기획안도 있었습니다. 셋째, 다양한 작업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기획이 많았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으나, 그 성과물이 현 단계 문학 분야에 있어서 청년 세대 작가로서 과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묻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후 이 사업에 지원하려는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서 기획안을 작성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사위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원서의 기획안이 돋보인다고 해서 지원자가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향후 심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작품 제출을 의무사항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 신청자들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자들이 아직은 문학세계와 문학하는 것에 대해 확실한 자기세계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기획서에 계획한 바대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한 방안으로 전문가 초빙 강의, 전문가의 멘토링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청년 예술가들이 예술

현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에 선정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면서, 이를 계기로 훌륭한 예술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시각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시각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14:00~17: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박혜수, 안진국, 채은영, 최승현, 홍진훤

2023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수혜 내역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예술가의 안정적 예술 현장 진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지원 목적에 따라 리서치-비평, 국내 발표, 해외 진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심의하였으며 지역의 균형 있는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균형 지원제도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심의하고 선정 비율을 고려했습니다. 총 377건의 지원서가 접수되었고 그중 101건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심의 방식은 총 5인의 심의위원이 약 1개월에 걸쳐 지원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였고 토론 심의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심의 기준은 신청자 및 참여자의 역량(40%),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30%)을 토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생애 첫 지원 사업인 만큼 지원서의 완성도보다는 작가가 제시하는 예술적 비전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를 우선 검토했고 새로운 조형적 실험을 시도하는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협업의 구성과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예산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오랜 토론을 거쳤습니다. 리서치-비평의 경우 단순 작업-전시의 과정이 아닌 연구의 목적이 명확한 사업을 선정하고자 했고, 동시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비평적 접근과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작업을 선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동시대의 여러 징후를 포착하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작가들과 함께 전통적인 기법과 조형을 탐구하려는 작가들도 함께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작가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두어 심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장르에서 지원이 이루어졌고 생애 첫 지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심도 있는 작업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수도권에 치중된 문화 예술 인프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작업과 전시도 여전히 많은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시작하는 작가들인 만큼 글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지원 양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다수의 심의위원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원 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본 사업으로 동시대에 의미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등장하길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연극·뮤지컬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연극·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14:00~17: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남지수, 변유정, 신경미, 이인복, 정재엽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써, 청년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현장에 진입하여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의 특이점으로는 그간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과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을 통합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유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사업은 리서치·비평, 국내발표, 해외진출 영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동시에 지역균형제도 의무적용 대상 사업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연극·뮤지컬 분야에는 총 227건(수도권 193건, 비수도권 3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인의 심의위원은 약 한 달에 걸쳐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를 사전검토하여 전수검토의견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신청자의 역량(40%),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30%)으로 구성된 평가지표에 따라 심의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현장심의에서는 각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결과를 취합하여 고득점자를 분류하였고, 토론과 논의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총 55건(수도권 리서치·비평: 전체 25건 중 7건 선정, 수도권 국내발표: 전체 167건 중 38건 선정, 비수도권 국내발표: 전체 34건 중 10건 선정)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심의에 관련한 유의사항 및 제척, 회피 제도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예술가 대상의 사업인 만큼 올해 지원자들 중에는 동시대 새로운 공연예술 형식(이머시브 연극, 관객참여 연극, 자기이야기하기 연극, 다큐멘터리 연극, 융합공연 등) 및 최근 공연계의 이슈나 트렌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데 관심 있는 지원자들의 수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서에는 공연의 컨셉만을 기술하였을 뿐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지, 이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지원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잘 서술해내는 역량도 지원사업에서는 무척 중요한 지점입니다. 또한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지원신청을 한 경우도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본 사업을 본인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써 진지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기계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작이 아닌 기존 작품을 재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보다는 공연발표 자체에만 목

적을 둔 지원자들이 여럿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관심 있는 청년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현해나갈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게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3년간 청년예술가들의 활동은 너무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지원사업이 다시금 예술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청년 지원자들이 많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올해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며, 선정된 지원자들에게는 축하인사와 함께 부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예술가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무용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무용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14:00~17: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예림, 김재리, 남지원, 박재홍, 장광열

2023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균형제도 의무 적용사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했으며, 사업유형별로 리서치·비평, 국내발표, 해외진출을 세분화하여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요구한 지원금 수혜 이력의 유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만 한정하고 있고, 대학생에서부터 전문예술가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지원자들의 경험과 경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업 주제의 측면에서는 특정세대가 공감할만한 주제를 선택하거나, 무용의 장르적 한계를 대중적이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접근하는 지원자들이 다수 있었던 점은 청년예술가들의 하나의 현상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매체 결합과 장르 융합을 넘어 협업의 실천적 방법을 제안하거나 특정 지역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에서 예술의 역할과 기능을 탐색하고자 의미있는 프로젝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나 소재가 참신하더라도 작업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기성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 유형별로 선정자의 규모가 제한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특정 유형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계획서의 완성도를 근거로 선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특정 유형에서는 대상이 선정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사의 과정은 서류심사로 진행되었으며, 총 69명의 지원자들 중 21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심의의 과정에서는 먼저 지원자들 중에는 타 공공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지원 사업에 여러 차례 선정된 경우가 더러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이미 선정된 사업과의 유사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국내발표의 경우 레퍼토리 작업을 전제로 이전 작품을 재공연할 경우에는 발전계획이 포함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산계획서 작성에서 대관료, 음악비, 사례비 등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한해 편성되었는가, 사례비의 경우 적정선에서 금액을 편성했는가를 중요한 준거로 삼았습니다. 리서치·비평의 경우에는 대상의 구체성과 방법론의 개발 및 실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학술적인 방법론을 차용한 계획서는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더라도 그것이 예술프로젝트로서 현장과 긴밀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의 경우 국제교류의 이상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서가 다소 부족했으므로, 청년예술가의 상황과 단계를 고려하여 네트워크나 국제무대 경험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를 살펴보았으며 초청을 받은 플랫폼의 국제적인 위상도 검토했습니다.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은 창작의 세분화된 유형을 중심으로 예술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으며, 안정적으로 첫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의 세부 분야의 지원정책이 마련되면서 비교적 다수의 지원자들이 창작을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기존에 진행한 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지원금의 취지를 이해하고 예술가로서 작업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템포를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음악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음악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9(금) 14:00~17: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고병량, 고윤화, 서홍준, 이종은, 최연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은 과거 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의 대표적인 세 가지 단계라 할 수 있는 리서치 비평, 국내발표, 해외진출 분야로 나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지역 균형지원제도 의무 적용 사업으로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구분해 심의가 진행됩니다. 지원규모는 리서치 비평의 경우, 개인 혹은 2인 300만원, 4인 내외 600만원, 8인 내외 800만원이며, 국내발표의 경우, 개인 혹은 2인 800만원, 4인 내외 1,200만원, 8인 내외 2,000만원으로 정액지원을 하며, 해외진출의 경우는 정액지원이 아닌 예산심사 후 확정을 하게 됩니다.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에서 음악분야는 리서치비평이 14건, 국내발표 200건, 해외진출 13건으로 총 227건이 신청 집계됐습니다.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약 1개월 동안 신청자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심의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평가 내역을 바탕으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최종 53건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에서는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해 작년보다 많은 청년 예술가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 고무적입니다.

심의 기준은 신청자 및 참여자의 역량(40%),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30%)에 중점을 두고 심의위원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 심의에서는 신청자 및 참여자의 역량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특히, 예술성, 예술가로서의 자질,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기준을 적용했으며, 아울러 사업계획서에 내용이 충실하게 잘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인지, 얼마나 그 분야에 있어서 기여도가 있을지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본 사업에 지원한 청년예술가들 중에는 뛰어난 역량과 우수한 경력을 바탕으로 향후 기대되는 지원자들이 적지 않아 긍정적이었으며,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감이 되는 문제, 이슈들을 녹여낸 기획도 있어 앞으로의 예술계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 이 또한 고무적이었습니다. 한편,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작성한 신청서들도 보였으며, 기존의 작업을 그대로 지원한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장르나 분야, 주제, 지역 등 가능하면 특정 분야에 치우침 없이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은 결과를 놓고 재검토를 여러 번 진행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예술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재도 그 어려움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술가의 꿈을 꾸고 있는 많은 국내 청년예술인들에게 특히 이번 사업에 지원한 모든 이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들은 이번 실패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주길 바라며, 선정된 지원자들은 지원 제도를 자신의 성장 발판으로 잘 활용해 향후 국내 예술계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11:00~13: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권준성, 김성주, 김창수, 문신원, 송정민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청년예술가들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청년예술가들이 예술 현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예술가 간의 협업을 통한 예술 활동 기회 확장과 창작의 역량을 강화 그리고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운영되어왔던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과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이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리서치·비평, 국내 발표, 해외진출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동시에 지역균형제도 의무적용 대상 사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전통 분야는 총 65건 (수도권 42건, 비수도권 2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심의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심의 평가 기준에 맞추어 신청자 및 참여자의 역량(40%), 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30%)를 기준으로 총 5인의 심사위원이 사전 전수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진행 된 현장심의에서는 각 심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총 18건(수도권 11건, 비수도권 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심의에 관련한 유의사항 및 제적, 회피제도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역별 배분 또한 비중 있게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의 지역 기반 활동 기회 확대도 고려하였습니다.

지원자들 중에는 최근 공연계의 트렌드에 대한 고민을 실험적으로 구현하고자 하거나, 전통 분야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준비해오던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지원도 많았으며, 관객과의 소통에 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역량과 창의적인 작품계획을 가지고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전을 설득력 있게 준비한 지원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전체적인 컨셉만 있고, 작품의 세부내용이나 그에 대한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지원자들도 많았습니다. 본 사업이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예술가로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컨셉과 의도 그리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또한 본 사업이 청년예술가 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한 신청자들도 다수 있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향후 본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예술가들은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작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았으면 합니다. 올해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며, 선정된 지원자들은 기본에 충실한 계획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예술가로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심의회원 일동

■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다원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다원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13:00~16: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건희, 김지연, 김태희, 이수정, 정두용

청년예술가 생애첫지원 다원예술분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지원사업 사각지대 청년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예술현장 진입을 유도하고 창작환경의 불안정성 해소, 청년예술가 간 협업 예술활동 기회 확대, 창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 준비단계 및 도전적 시행착오 지원을 통한 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청년예술가 창작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하는 것은 청년예술가들에게 시급한 지원이기도 합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예술이라 표현되는 다원예술분야에는 많은 작가들이 지원하여 다원예술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지원사업에서는 신청자 및 참여자의 역량을 40%의 기준으로 가장 높게 보았으며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에 두어 공정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청년작가들의 기존 활동실적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신청사업의 주제와 목적이 명확하며 내용이 참신하고 창의적인지, 예술성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지, 본 사업 목적과 지원취지에 부합하는지, 추진방법과 일정, 예산계획 등은 효과적으로 수립되어있는지 등을 세부 평가내용으로 삼아 약 한 달여간 전수검토 및 사전채점을 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이 처음인 청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지원서의 세련됨이나 장황함 대신 기초예술에 뿌리를 두고 명확히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는 작업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테크놀로지의 활용 및 보여주기식 사용이나 영상, 전시, 사진, 설치 등 개인 작품발표에 여러 매체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과 여러 작가나 장르들을 병렬로 쭉 구성하는 레퍼토리식 구성보다는 기초예술에 뿌리를 두고 무엇을 실험하고 연구할지 사유와 방법론이 상대적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작품을 선별하고자 하였으며,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드러내고자 하는데 주제와 방법 간의 합을 잘 이루어낸 영향력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신청자들의 지역이 편중되는 현상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으며,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독창적인 주제로 다원예술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다원예술의 미래를 펼쳐나갈 22명의 젊은 다원예술작가들은 형식과 방법을 찾기 이전에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표현할 형식

과 방법을 찾아가는 지난한 고민과 함께 보다 성장하는 2023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비록 이번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 과정 또한 예술가로 성장하는데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다원예술분야 지원사업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의회원 일동